

# ‘첨단소재’ 전면 배치... 반·배·수 고부가 영토 선점

(반도체·배터리·수소)

16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산업의 패러다임이 격변하고 있다. 한때 캐시카우로 꼽히던 범용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발 물량 공세와 글로벌 장기 불황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 가운데 롯데케미칼은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전환의 골자는 명확하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시황에 취약한 ‘기초소재’ 비중을 과감히 덜어내고 고기능성 ‘첨단소재’를 전면 배치하는 것이다. 또 외연으로는 롯데 그룹 화학군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고부가 미래 영토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 ◆중국발 공급과잉 직격탄... 수익성·재무 부담이 중고

그간 롯데케미칼은 NCC(나프타분해시설) 기반 범용 제품을 다루는 기초소재사업부의 실적 의존도가 높아 시황 타격이 컸다.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18조 4830억 원, 영업손실은 943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영업이익의 1조 5356억 원을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 악화가 가파르다.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로 에틸렌 스프레드가 좁혀진 것이 치명적이었다. 업계는 중국의 증설 공세가 오는 2027년까지 이어져 하반기 공급과잉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35억 원으로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으나 이는 저가 나프타 투입에 따른 일시적 래깅 효과라는 분석이다. 미·이란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차질을 빚자 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저가 매입 원료가 고가에 판매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상반기 고가 원재료 투입과 증동 리스크 완화에 따른 제품이 하락이 맞물려 역래깅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재무 부담도 기중되면서 한국신용평가는 실적 회복 지연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 중 대규모 증설 공세에 매출·손익 감소 한국신용평가 등급전망 AA- 하향조정

대산공장 설비 중단 NCC생산능력 감축 여수공장 재편... 기초화학 매출도 줄어

## 첨단소재 중심의 고부가 스펙셜티 확대 4년내 기능성 스펙셜티 비중 60% 목표 화학군 먹거리 생태계 가동 ‘외연 확장’

## ◆비핵심 가동 중단과 자산 매각... ‘양’을 줄여 재무를 살리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국내외에서 기초소재사업부의 양적 규모를 줄이고 있다.

충남 대산공장은 물적분할 후 HD현대케미칼과 통합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통합 이후 에틸렌 연산 110만 톤 규모 설비는 3년간 가동을 중단해 전체 NC C 생산능력을 약 15~20% 감축한다. 분할 직후 개별 기준 차입금 약 1조 6000억 원이 신설법인으로 이전 되면 순차입금 비율은 41.7%에서 26.9%로 개선된다. 연결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합병이 완료되는 오는 9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한창이다.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NCC 4개사는 지난 3월 ‘여수 1호 프로젝트’ 계획서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일부를 분할해 여천NCC와 합병하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현물출자로 참여하는 안이다. 이해관계 조율로 최종 확정은 이달로 넘어갔으나 재편이 완료되면 기초화학 매출 비중은 지난해 62%에서 대산 분할 후 56%, 여수 분할 후 45%까지 낮아질 추산이다.

해외 비핵심 자산 정리도 빠르다. 지난해 파키스탄 PTA 법인 LCPL 지분을 1276억 원에 매각한 데 이

어 말레이시아 자회사 LC타이탄 매각도 추진 중이다. LC타이탄은 가동률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상태다. 롯데케미칼은 지분 75.86%를 보유 중이며, 업계는 장부가(1조 5051억 원)를 밀도는 가격이라도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본다. 올해 1분기 말 연결 차입금이 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이상 증가한 10조 1082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저수익 자산 매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첨단소재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군살을 뺀 자리는 IT·가전·모빌리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과 복합소재를 생산하는 첨단소재사업부가 중심이 돼 고부가 스펙셜티 소재로 채운다. 실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영준 대표이사는 고기능성 화학 기업 전환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선언했고, 주우현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첨단소재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정 효율을 위한 AI 도입도 첨단소재사업부가 주도한다. 컬러LAB은 AI 기반 컬러 매칭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개발 효율을 높였고, 최근 디자인 특화 AI를 적용한 소재 디자인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하며 모빌리티와 가전 등 미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오는 2030년까지 기능성 스펙셜티 소재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화학군 시너지로 첨단 생태계 구축... ‘질’적 도약으로 무게중심 이동

롯데케미칼 외연에서는 롯데 화학군 차원의 미래 먹거리 생태계가 가동된다. 자회사와 합작사들이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수소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다.

반도체 소재는 롯데정밀화학이 한덕화학이 전담한다. 한덕화학은 지난 6월 경기 평택 포승(BIX)지구에 13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국내 유일 TMAH 생산 기업인 한덕화학이 생산을 맡고 롯데정밀화학이 원료를 공급하는 고부가 공급망을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다.

고기능 플라스틱 분야는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담당한다. 전남 울손산단에 연간 50만 톤 규모 컴파운드 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며 향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분야까지 대응 가능한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Super EP)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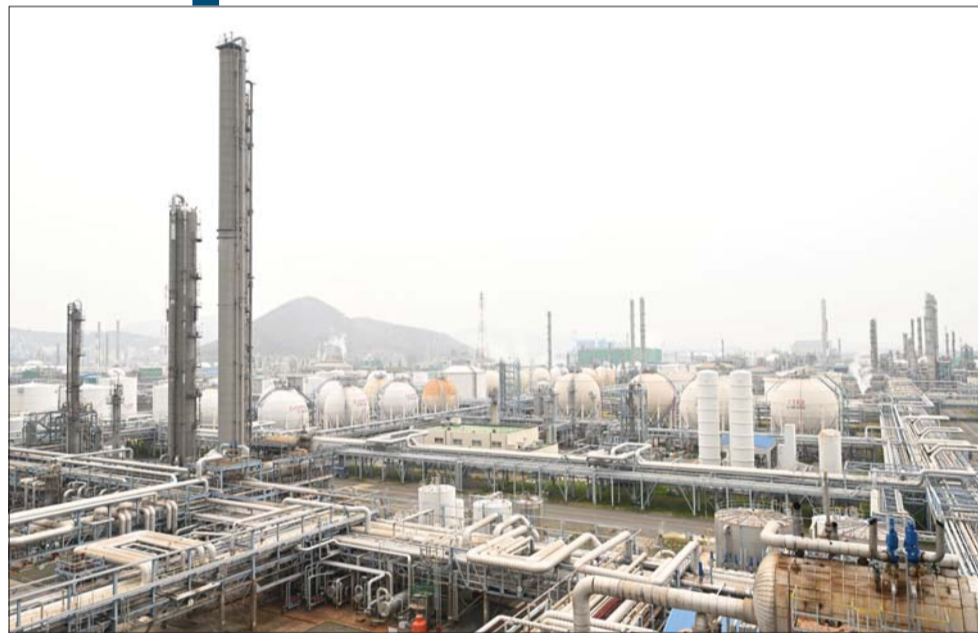
배터리 소재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이끈다. 스페인 연산 3만 톤 규모 동박 공장을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며 북미 ESS용 동박 공급과 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회로박 사업도 넓히고 있다. 양극박 영역에서는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미늄의 합작법인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가 미국 캔터키주에 33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만 6000 톤 규모 공장을 준공, 현재 시운전과 북미 고객사향 샘플 생산을 진행 중이다.

수소 역시 화학군의 미래 성장축이다. 부생·개질수소를 기반으로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롯데정밀화학이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암모니아 저장설비를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coul.co.kr



metro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뉴스시스



한덕화학 평택공장 조감도. /롯데화학군